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1월 18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2장 22-29절

설교제목 : “네가 로마시민이냐”

바울의 간증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마자, 격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적 잣대로 볼 때, 이방인의 구원을 옹호하는 바울은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더 이상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극한 감정을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끝을 공중에 날리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22-23) 종종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세상의 잣대와 가치로 인해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형통과 평안의 삶보다는 세상이 핍박하고 반대합니다.(요일3:13)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세상의 부당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복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히브리말로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고자 바울을 심문하려고 합니다.(24절) 바울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마의 채찍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채찍이 여러 가닥의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마다 쇠조각이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을 경우 살이 패여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구가 되거나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25절)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야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만일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확인한, 천부장은 매우 두려워합니다.(26-29절) 결국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시민권은 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으로써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감격과 기쁨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자신의 자존감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자존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특징이 바로 **관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의 관용보다 더 큼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격노한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된 증거가 있습니까?(요한일서3:14-15)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화목케 하는 직분**

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증거입니다. 로마시민권이 그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무한책임을 갖고 돌보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내일이 다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시민권보다 더 큰 천국시민권을 지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며, 낙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까? 삶의 위기 때문입니까? 삶의 실패 때문입니까? 만일 바울이 위기 중에 로마시민권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완전히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격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을 심문하려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알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